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 권리 헌장(장애인權利憲章)은 1991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채택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1. 장애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2. 장애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3. 장애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4. 장애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5. 장애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6. 장애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1. 장애인도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0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용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장애인의 특유한 욕구는 국가정당이나 계급단체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가족은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참여자들의 필사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모아 편집함.

함께 적은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장애인 인권 헌장'은 그 원칙을 담은 선언입니다. 동시에 장애인 역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다짐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 인권 헌장 필수하기'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헌장을 옮겨적으며, 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겨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분의 참여자들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쓴 장애인 인권 헌장. 종이에 꼭꼭 눌러 쓴 글자들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편집자의 말 |

이번 소식지의 주제는 '잇다'입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이 있었던 이번 4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 있다 보면, 많은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리저리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웃고 떠드는 그 풍경은, 장애인식개선이란 결국 서로 다른 삶을 이해와 공감으로 잇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그런 연결의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시간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과 삶을 잇다

동행서울 누리축제 '장애인과 나란히' 부스 운영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보기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이 닳고 뒤축이 구겨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비로소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복지관은 이번 달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에서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과 나란히'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부스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OX 퀴즈와 '거울 속 미로찾기' 체험을 시민들과 함께했는데요.

'거울 속 미로찾기' 체험은 평범한 미로를 거울에 비춰 보며 출구를 찾아가 보는 것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는 거울 속 미로를 헤쳐가며 참여자들은 방향을 잃고 당황하거나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세상의 복잡함과 혼란스러운 감각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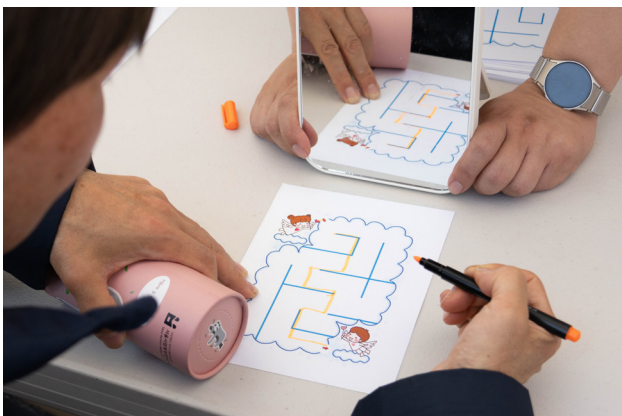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길이 보였거든요.
거의 3초도 안 걸렸는데, 거울 보고 하려니까
방향도 너무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김진희 참여자-

짧은 체험이었지만 참여자들은 익숙했던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손주 가르치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이상했어.”

체험을 하며 김금옥(가명) 할머니는 발달장애인 손자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어렸을 때 내가 키웠는데 발달장애가 있었거든.
하나를 가르쳤는데 둘을 몰라서 답답했지.
하도 답답하니까 혼도 내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해보니까
우리 손주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았던 건가 싶네.
지금 손주가 서른이 넘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



짧은 시간 속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공감과 이해가 모여 서로 다른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상의 풍경을 만들어갈 기대합니다.

느려도 좋아

2025 동대문구거북이마라톤대회

‘마라톤 대회’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부지런히 뛰는 선수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다른 선수보다 1초라도 더 빨리,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나아가려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6일 장안수변 공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천천히 걷고 뛰며 따뜻한 봄날을 즐기는 모습. 전통휠체어를 탄 참가자, 부모님 손을 잡고 걷는 어린이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봄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장애인. 누구도 앞서려 하지 않고, 누구도 뒤처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소한 풍경.

바로 2025 동대문구 거북이 마라톤 대회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행사추진위원회로 참여해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함께 했는데요.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행사입니다. 이야기에서 토끼는 빠르게, 거북이는 천천히 걷지만 두 주인공을 결국 같은 결승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처럼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여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봄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기도 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속도로 봄을 느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걸었던 거북이 마라톤 대회의 풍경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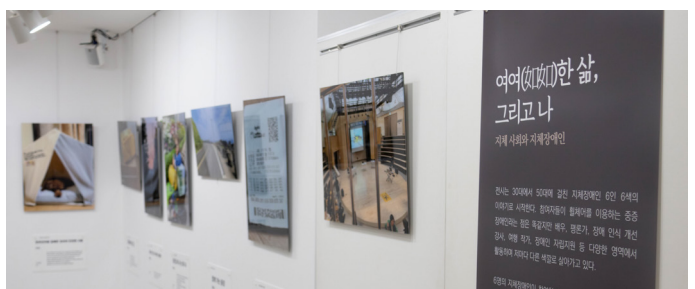
사진으로 전하는 삶의 이야기

이 작품은 장애당사자 유금순님이 직접 촬영하고 기록한 포토보이스 결과물입니다. ‘포토보이스’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사람들이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은 돌봄, 나이 들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동국대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와 우리 복지관의 공동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시니어, 요양보호사 22인의 참여작가 70여편의 포토보이스 작품을 전시한 사진전 ‘2025년 장애와노화포토보이스전시회’ (如如)한 삶이 지난 4월 16~20일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 전시회에 전시된 70여편의 작품에는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노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으로 기록한 세상을 바라보며 관람객들은 미처 보지 못했던 장애 당사자들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바라보는 나는 집을 지키거나, 집에 있어야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현관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이웃들은 눈,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이른 아침이거나 늦은 밤에 왜 나가는지를, 어디에 가는지를 물어보기 일쑤여서 내심 당황스러울 때가 많음.
대형마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혼자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심심찮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혼자 다닐 때도 있지요?’라고 대답하거나 ‘활동지원사도 쉬는 날이 있지요?’라고 대답하는 일이 빈번함.”
유금순, 「반려견처럼 집에만 있어야 안전한 사람」